

경상남도 고립·은둔 청소년 **실태조사<sup>1)</sup>**

임채영 수석연구원(cylim5@gnpass.or.kr)

김나현 선임연구원(nhkim@gnpass.or.kr)

경남의

고립·은둔 청소년은

어떻게

지내고 있을까?



# 경상남도 고립·은둔 청소년 실태조사!

경상남도의 9~24세 청소년 중 고립·은둔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입니다.

사전조사

청소년

2,231명



본조사

고립·은둔 청소년

343명



## 고립·은둔 청소년이란?



고립

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 
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 
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 
부재한 상태



은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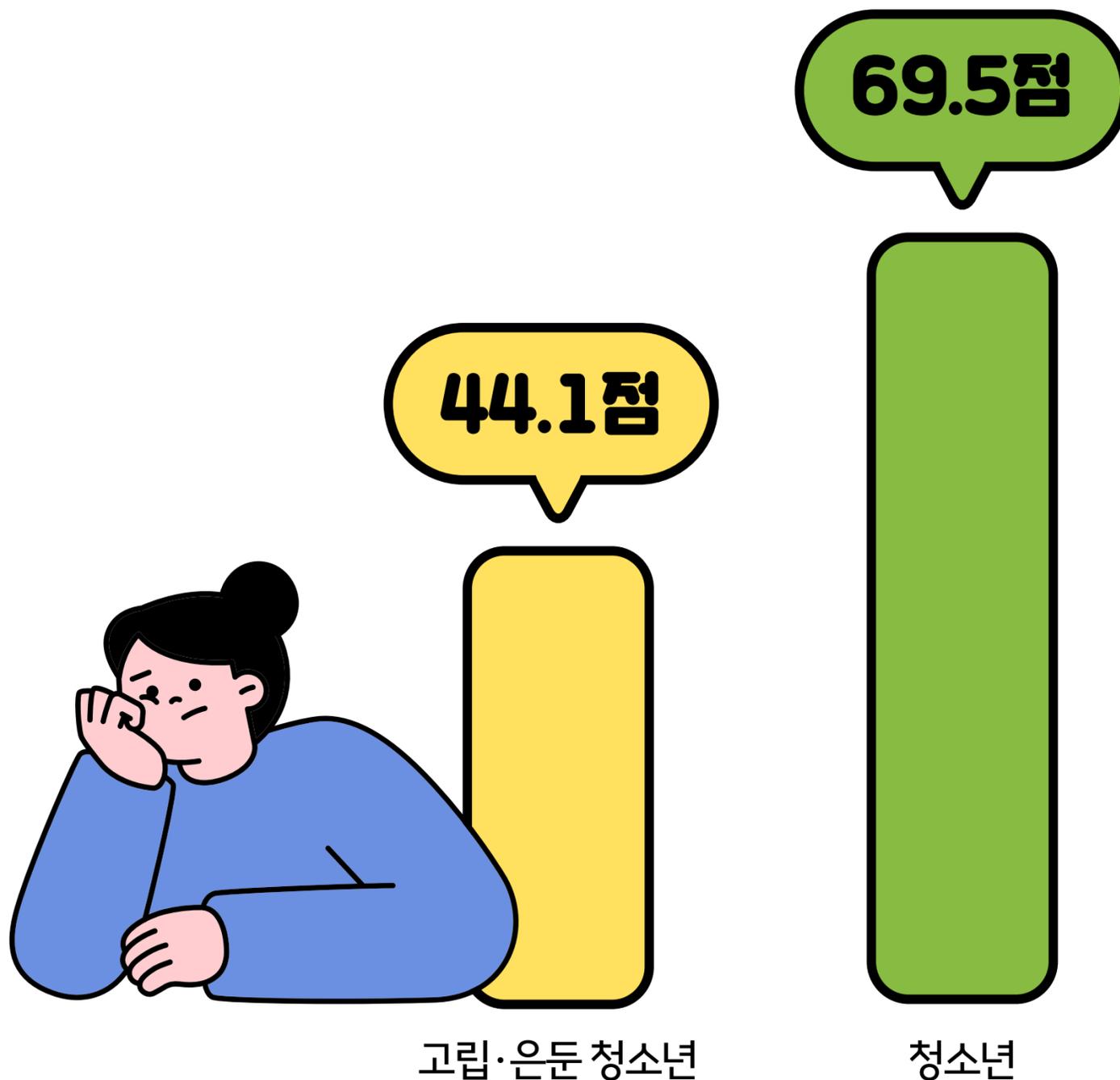
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 
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 
생활하는 청소년

출처: 고립·은둔 청년 지원방안(2023)

따라서 고립·은둔 청소년이란, 고립생활 또는 은둔생활  
그리고 고립·은둔생활을 하는 청소년으로 정의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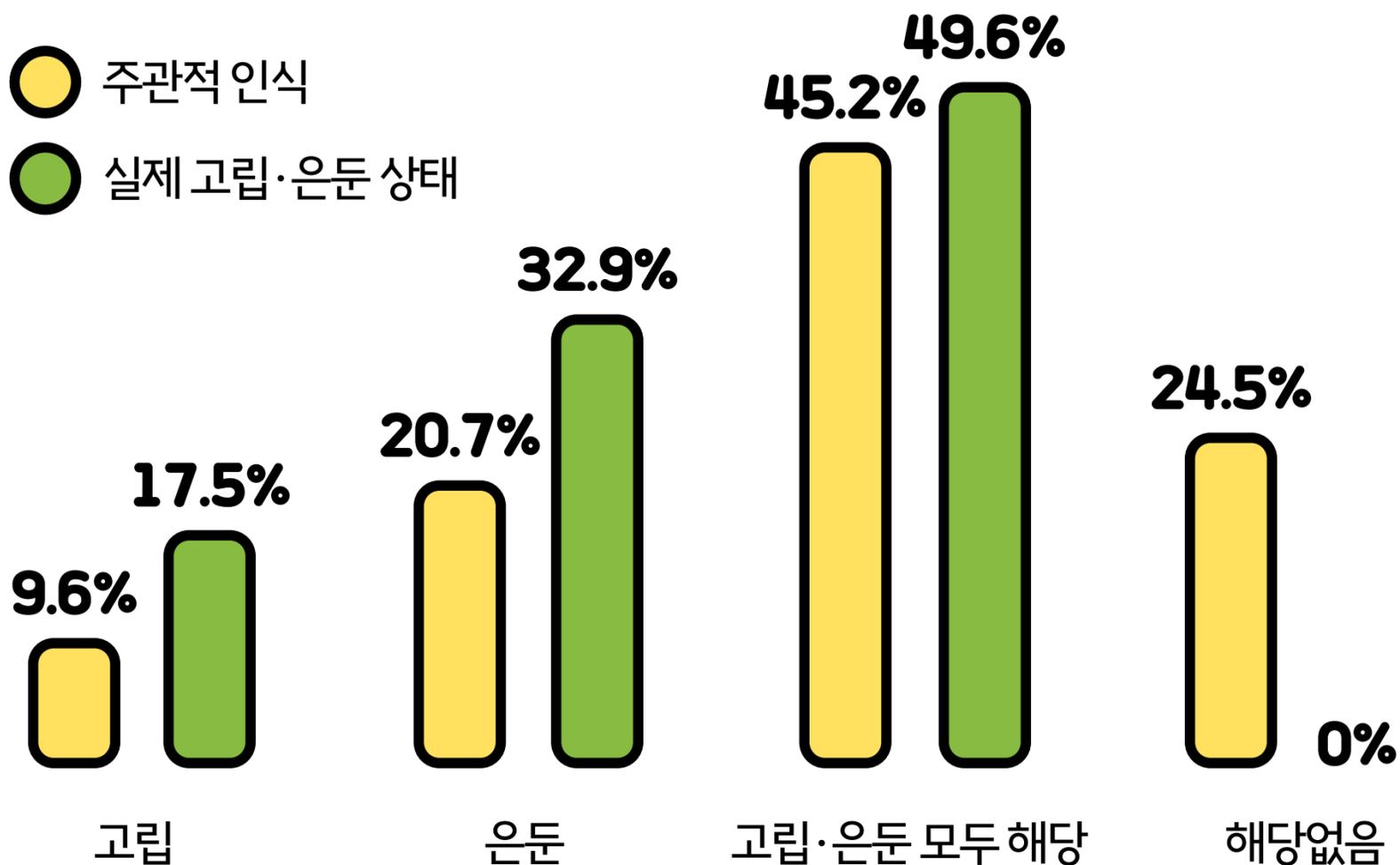
# 고립·은둔 청소년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까?

고립·은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44.1점으로  
청소년 69.5점에 비해 25.4점 낮게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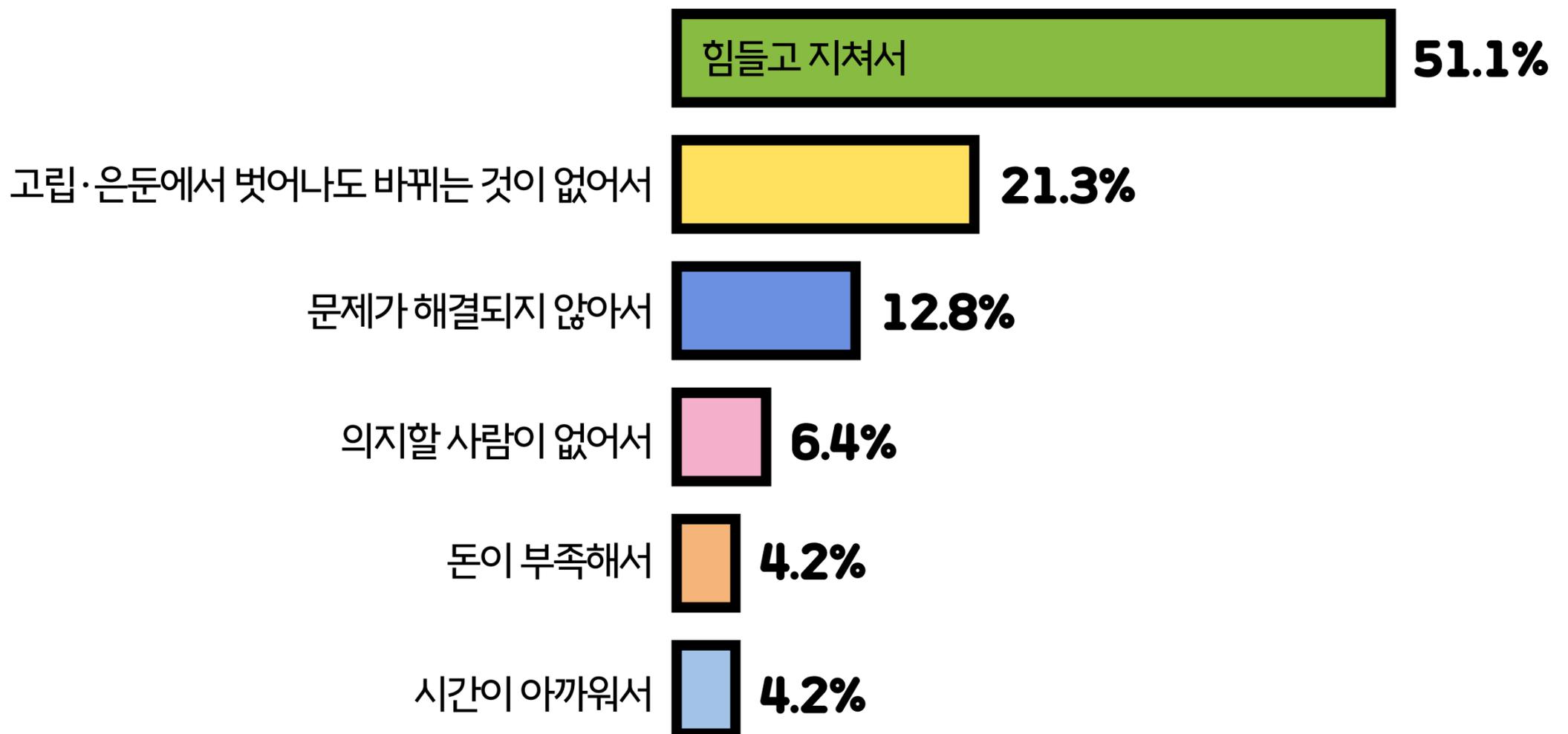
# 고립·은둔 청소년이 인식하는 주관적 상태와 실제 문항으로 구성된 고립·은둔 상태는 차이가 있을까?

실제 고립·은둔 청소년 중 24.5%는 자신이 고립 또는 은둔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,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상태를 고립·은둔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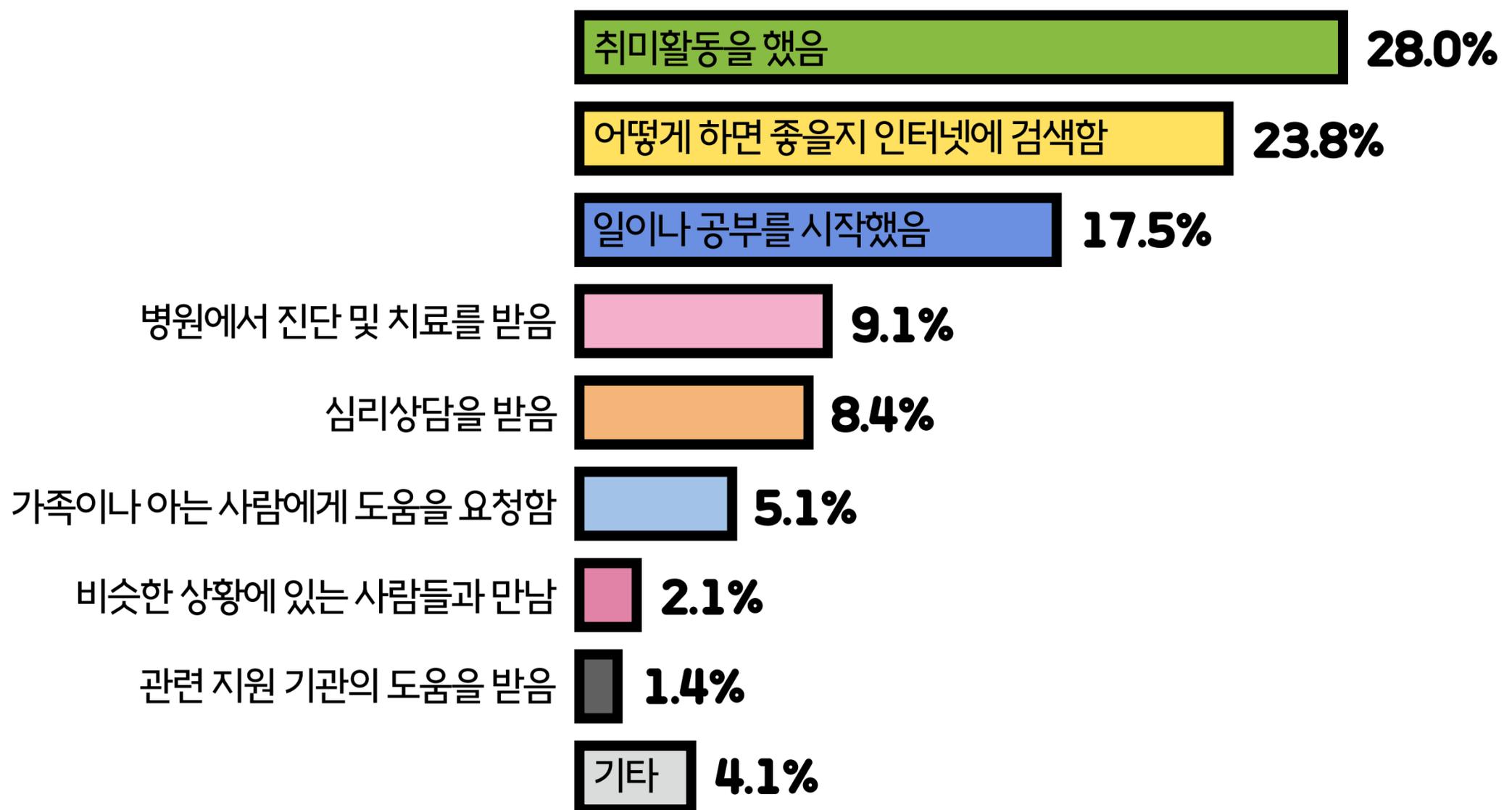
# 고립·은둔 청소년의 재고립 정도는 얼마나 될까? 재고립의 이유는 무엇일까?

본 조사에서 고립·은둔 청소년에 해당하는 343명 중 현재의 상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응답이 13.7%로 나타남. 다시 고립·은둔 상태가 된 이유는 힘들고 지쳐서, 고립·은둔에서 벗어나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,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순으로 조사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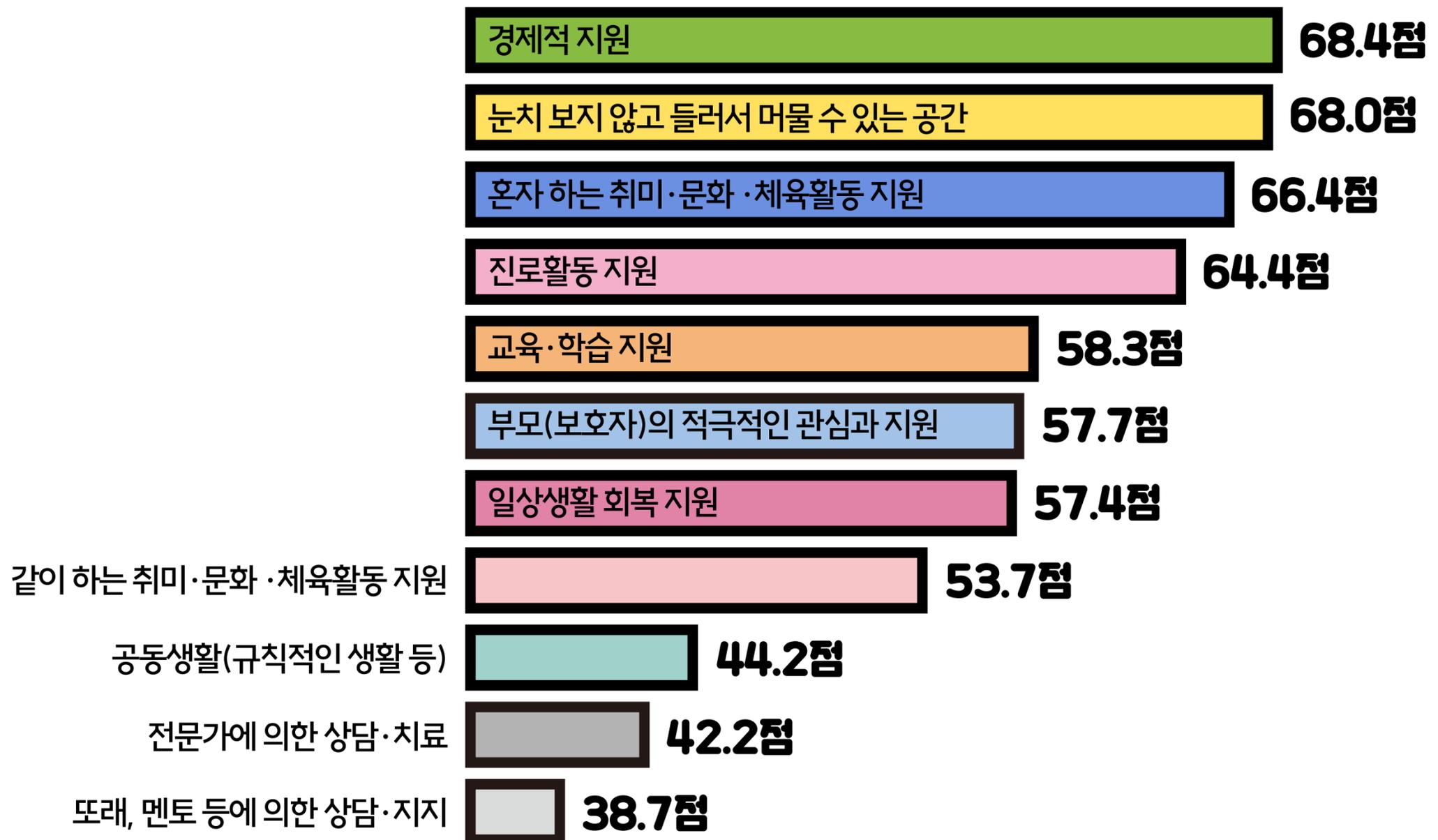
# 고립·은둔 청소년은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할까?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?

고립·은둔 청소년의 55.1%는 현재의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함.  
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노력으로는 취미활동,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터넷에서 검색함, 일이나 공부를 시작함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# 고립·은둔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은 무엇이 있을까?

고립·은둔 청소년에게 필요한 도움은 경제적 지원,  
눈치 보지 않고 들러서 머물 수 있는 공간,  
혼자하는 취미·문화·체육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





**“고립·은둔은 여러 가지 이유로  
누구나 겪을 수 있고,  
도움이 필요한 일입니다.”**